

##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코믹버스터가 온다

### SBS 금토드라마



9월 17일 첫 방송

〈펜트하우스 3〉 후속 SBS 새 금토드라마 〈원 더 우먼(One the Woman)〉(극본: 김윤, 연출: 최영훈)이 9월 17일(금) 첫 방송된다. 〈원 더 우먼〉은 비리 검사에서 하루아침에 재벌 상속녀로 인생 체인지가 된 후 빌런 재벌가에 입성한, 불량지수 100% 여검사의 ‘더블라이프 코믹버스터’ 드라마다. 이하늬-이상윤-진서연-이원근 등 믿고 보는 배우들과 지난해 〈굿캐스팅〉을 통해 코믹 연출력을 인정받은 최영훈 감독의 만남이 관심을 집중시킨다.

특히 이하늬는 이 작품에서 스폰서 비리 검사계의 에이스 조연주 역과 재벌가 한주그룹 며느리 강미나 역으로 생애 첫 1인 2역에 도전한다. 먼저 조연주는 조직폭력배 서평 남문파 행동대장의 외동딸로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고시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한 인생역전의 주인공이다. 취미는 스폰 받기, 특기는 실세 라인 타기이며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사는 싸가지 없고 성질머리 더러운 인물. 반면 강미나는 유민그룹의 막내딸이자 한주그룹 며느리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지녔지만, 유민그룹 회장의 혼외자인 게 드러나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악랄한 구박을 받으며 신데렐라 삶을 살고 있다.

이상윤이 맡은 한승욱은 한주그룹 적장손이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인물이다. 후계 자리와 함께 첫사랑이었던 약혼녀 강미나도 사촌동생에게 빼앗기고 미국으로 떠났으나 본인의 힘으로 부를 일군다. 아버지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 한승욱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조연주와 얽히고설리게 된다.

진서연은 야망과 독기가 넘치는 한주그룹 장녀 한성혜 역을 맡았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늘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 있는 성혜는 남동생들을 제치고 후계자가 되기 위해 몇 배나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지도 않았던 올케 강미나까지 걸리적거리기 시작한다.

이원근이 맡은 안유준 역은 조연주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교수들 사이에서 사위감 후보 1위로 뽑힐 만큼 외모, 두뇌, 심성을 다 갖췄는데 연주 곁을 맴돈다.

송원석은 한주그룹 한영식 회장의 차남이자 강미나와 정략 결혼한 한성운 역으로 분한다. 외모, 재력, 능력을 두루 갖춘 황태자로 각종 화려한 짜라시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강미나와 사랑 없는 결혼생활을 하지만, 사고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 강미나에게 예전과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밖에도 대한민국 대표 관록의 배우 전국환, 김창완, 나영희, 예수정 등이 〈원 더 우먼〉에 든든함을 가득 채울 황금 조연으로 출격을 알리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작진은 “각양각색 캐릭터들의 매력이 담긴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드라마를 선사할 것”이라며 “현실 속 히어로가 전할 강력한 짜릿함을 방송을 통해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력과 갑질을 향한 본격 편치로 강력한 시원함과 짜릿한 긴장감을 선사할 〈원 더 우먼〉은 9월 17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 ‘모비딕’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 돌파!

###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 확장에 박차 가한다



SBS ‘모비딕’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을 넘어섰다.

SBS가 지난 2016년 야심차게 론칭한 디지털 오리지널 브랜드 ‘모비딕’은 디지털다운 파격적인 소재와 편집에 TV의 섭외력과 영상미를 더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여 왔다. <양세형의 숏터뷰>, <박나래의 복불쇼>, <아이돌시티 시리즈> 등 화제의 콘텐츠들은 유튜브에서만 누적 조회 수 3억 회 이상을 기록하며 구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모비딕 간판 콘텐츠인 <제시의 쇼터뷰>는 단일 클립 조회 수 1,000만 뷰를 넘긴 ‘제시×말왕’ 편을 시작으로 평균 조회 수 100만 뷰 이상을 이어가며 꾸준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공개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T×T)’ 편은 현재 550만 뷰를 넘어서는 등

디지털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모비딕은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티파니 영이 단독 MC로 나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이슈 인물을 인터뷰하는 <티파니와 아침을>이 성공적으로 론칭했고, 연말에는 고은아의 연기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은 숏폼 시트콤 <대충 살고 싶습니다>가 론칭을 앞두고 있다.

모비딕은 이러한 강력한 오리지널 콘텐츠와 채널 파워를 바탕으로 하반기 외부 파트너와의 공동제작, 언택트 공연 프로젝트 주주 등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베트남판 <런닝맨 시즌 2> 드디어 첫 방송!

### COVID-19도 막지 못한 예능 한류와 K-브랜드 동반 성장

베트남판 <런닝맨 시즌 2 - Choi La Chay>가 9월 19일(일) 방송을 시작한다. 시즌 1의 성공에 힘입어 프라임 타임인 일요일 저녁 8시 30분으로 시간을 옮겨 HTV7을 통해 방송된다. 출연자도 3명 더 합류했다.

베트남판 <런닝맨 시즌 2>는 원래 7월 12일에 첫 방송 예정이었다. 여기에 맞춰 4월 10일 우리 제작진이 베트남 현지에 도착했고, 6월 23일까지 베트남에 머물며 15회의 모든 촬영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4월 말부터 시작된 베트남 내 코로나 상황 악화로 부득이 중간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양국 간의 논의 끝에 출연자들이 모두 백신을 접종하고 한국으로 와서 촬영을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베트남 시청자들에게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다. 팬데믹으로 갑갑한 베트남 시청자들에게 베트남에서 거의 보기 힘든 서해안의 뿔, 아시아 유일의 서핑 풀, 서울의 랜드마크들, 한국 <런닝맨>의 특별 게스트 등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채로운 요소들이 시즌 2의 곳곳에 넘쳐나기 때문이다. 시즌 1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

오고 있다. 시즌 2에 대한 기대는 현지 및 글로벌 스폰서들의 동향에서도 알 수 있다. 팬데믹 상황을 맞아 베트남 경제 및 광고 시장이 40% 이상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런닝맨 시즌 2>의 스폰서들은 끝까지 스폰서십을 유지하고 있다. SBS는 현지 광고주들 뿐만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제품들을 프로그램 곳곳에 녹여내며 한류와 K-브랜드의 동반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즌 1에 이어 시즌 2의 연출을 맡은 최소형 PD는 “글로벌 콘텐츠가 실현되기 힘든 시국에 모두가 힘을 모아 한국-베트남 양국에서의 촬영이 성사되어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SBS 콘텐츠가 시즌제로 방송될 예정이다. <좋은 친구들: 인도네시아판 시즌 2>가 오는 11월 6일(토)부터 인도네시아 NET TV를 통해 방송된다. <좋은 친구들> 역시 시즌 1의 성공에 힘입어 시즌 2를 제작·방송하게 되었는데, 시즌 1보다 훨씬 강화된 캐스팅으로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 ‘우와한 비디오’ 채널 구독자 100만 명 돌파!

### 유튜브에서도 사랑받는 휴먼 스토리의 명가



교양 D스튜디오의 ‘우와한 비디오’ 채널이 지난 8월 25일(수) 구독자 수 100만을 돌파했다. ‘마라’ 맛 독한 콘텐츠들이 넘쳐나는 유튜브에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로 2년 남짓 동안 꾸준히 다가가며 이룬 의미 있는 성과다. 2019년 5월 교양 대표 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이하 <순간포착>) 내용을 유튜브에 맞는 포맷으로 변형해 본격 서비스하기 시작한 이래, 채널 누적 조회 수 11억 회, 연간 조회 수 4.6억 회를 기록하는 등 요란하지 않되 강력한 채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최고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맹인 아빠’(1,490만 회)를 비롯해서, ‘7번방의 선물’ 등 4개 영상이 천만 회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조회 수 상위 100개 영상의 평균은 460만 회에 이른다. 올 초부터 <영재발굴단> 방송 내용도 제공하면서 영재들의

근황과 메시지도 공개해 맘 카페와 커뮤니티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3년간 <순간포착>을 통해 소개되어 TV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놀랍고도 따뜻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제공해야 유튜브 환경에 최적화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제작해야 그 장점이 고스란히 전달되거나 증폭될 것인지에서 ‘우와한 비디오’의 고민은 시작됐다. 최민철 프로듀서는 “내레이션 대신 자막을 더 많이 활용한다. 영상도 주인공을 둘러싼 감정이 잘 전달되는 것 위주로 선택해서, 상대적으로 짧고 쉬우면서도 감성적인 포인트가 부각되는 메이킹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한다. 그 사이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다큐 기법의 관찰 예능이 대세가 됐지만, 일반인의 온기 있는 휴먼 스토리가 유튜브에서도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와한 비

디오’가 입증하고 있다.

최근 ‘우와한 비디오’는 출연자들의 현재 모습을 소개하는 등 자체 제작 비중을 높이고 있다. 지난 6월에 2주에 걸쳐 업로드된 ‘엄마 잃은 영재 피아니스트’ 본편과 근황편은 지금까지 3개 클립 포함 8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해외 시청자들도 각국의 언어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 오기도 했다. 또 도쿄 올림픽에 맞춰 국가 대표로 출전한 영재들의 예전과 최근 모습을 업로드하면서 국민적 관심에 부합했다. 최민철 프로듀서는 “채널 모태이자 본방송인 <순간포착>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 ‘사람과 호기심’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재 폭도 넓히고 자체 제작 역량도 키우는 등 지속 가능한 경쟁력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 Boys be <LOUD> 대단원의 막 내린다!

라우드

9월 11일(토) 마지막 생방송



JYP TEAM



P NATION TEAM

2021 월드와이드 보이그룹 프로젝트 <LOUD: 라우드>(이하 <라우드>)가 9월 11일(토) 마지막 생방송을 앞두고 있다. <라우드>는 SBS <K팝스타> 제작진이 국내 대표 기획사인 JYP, 피네이션과 손잡고 ‘NEXT K-POP’을 이끌 어갈 보이그룹을 론칭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첫 방송에서부터 분당 최고 시청률 11.3%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실력과 함께 참가자만의 매력을 찾아내고 이를 극대화시키는 다양한 라운드들은 <라우드>만의 차별점이다.

박진영과 싸이 역시 참가자들의 잠재된 매력을 끌어내기 위해 혹평 대신 따뜻하고 실질적인 조언은 물론 자신들

의 노하우가 담긴 기획사 시스템을 아낌없이 오픈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답했다. ‘에이스’로 평가받은 이계훈, 천준혁, 우경준 등은 양 팀의 중심축을 맡아 어엿한 아이돌 멤버가 됐고, 이동현, 고키, 은희 등은 본인들의 매력에 실력을 더함으로써 ‘원팀’의 멤버가 됐다.

이 같은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의 탄생에 팬들은 열광했다. <라우드> 공식 SNS 계정의 팔로워 수는 초기보다 3배 이상 급증했고, 생방송 라운드에 돌입하면서 트위터 내 인기 키워드를 보여주는 ‘실시간 트렌드’에 <라우드>가 매주 노출되며 SNS 화제성을 입증했다. 최근 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조사한 9월 예능 프로그램 브랜드 평판 TOP 10에 오르기도 했다. 9월 4일(토) 생방송에서 이계훈, 케이주, 아마루, 윤민, 이동현이 ‘팀 JYP’, 천준혁, 우경준, 최태훈, 은희, 오성준, 장현수, 고키가 ‘팀 피네이션’의 최종 데뷔 조 멤버로 선정된 가운데, 11일 방송에서는 두 팀이 완전체로 처음 선보이는 스페셜 무대들이 전격 공개될 예정이다.

## <전설의 무대-아카이브K>, <AI vs 인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최근 5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지각 시상식을 열었다. <전설의 무대-아카이브K>는 2021년 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전설의 무대-아카이브K>는 대중음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전설의 가수들의 음악, 그와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와 다양한 영상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은 2021년 2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국내 최초 AI와 인간 최고수가 대결을 벌이는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인간과 AI와의 대결과정을 통해 AI의 높은 기술력을 선보여 놀라움을 자아냈다. 심사위원들은 “인류와 기술의 공존 방향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AI 기술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기획의도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영상 및 무마 정황’ 이달의 기자상



홍영재 정윤식

사회부 법조팀의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영상 및 무마 정황 단독 보도’(안희재, 홍영재, 원종진, 배준우, 정윤식)가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제370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1부문을 수상했다.

안희재 기자 등은 현직 법무부 차관의 폭행 영상을 생생히 보도함으로써 공개 사과와 함께 청와대의 사표 수리를 이끌어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8월 27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좋아하는 일 평생 할 수 있어 행복”

- 아나운서팀 김다영, 김가현(2021년 경력 공채)

###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김다영:** 1992년생으로 서울에서 자랐다. 부모님과 두 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다. 목포MBC에서 1년 2개월, 부산MBC에서 1년 반 일했다.

**김가현:** 1997년생으로 집은 마산이다. 부모님과 다섯 살 위 언니가 있다. KBSN스포츠에서 일했다.

### 아나운서의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됐나?

**김다영:** 대학생 때 TV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전지현, 송중기 등 배우들과 함께 면세점, 맥주, 화장품, 정수기 등의 광고를 촬영했다. 대형 기획사에서 배우 제의를 받기도 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았고 부모님도 반대하셨다. 그러던 중 의류학과 3학년 때 4학년 선배들의 졸업작품 패션쇼의 사회를 보게 됐다.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 하는 일이 무척 떨렸지만 막상 무대에 오르니 설레더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이 적성에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아나운서를 꿈꾸게 됐다.

**김가현:** 고등학교 때 방송반에서 제작부장을 하면서 막연히 PD를 꿈꿨다. 대학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면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도 공부했는데, 생각과 달리 제작이 제게 맞지 않았다. 그래서 왜 PD를 꿈꿨을까 생각해 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면서 스스로 정체가하지 않을 수 있는 방송국이 좋았던 거였다. 학교 홍보대사를 하면서 수백 명 학생 앞에서 말하는 게 즐거웠던 기억도 났다. 되돌아보니, 아나운서의 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없던 것뿐이었다. 경험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2018년 SBS 아나운서 공채 시험에 응시했다. 1차 합격 후 3차까지 준비과정이 몹시 재밌었고,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좋았다. 3차에서 떨어진 후 본격적으로 시험을 봤고, KBSN스포츠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 돌고 돌아 SBS에 왔다.

###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있다’ 하는 게 있나?

**김다영:** 학원에서 열 번 수업 듣는 것보다 실전 경험을 한 번이라도 더 쌓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왕복 7~8시간 거리의 지역 케이블 방송사 촬영을 다니기도 했다. 힘들었지만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게 많았고, 덕분에 아나운서 준비를 늦게 시작한 것에 비해 빨리 취업했다.

**김가현:** KBSN스포츠에 들어간 지 두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다. 리그가 중단되니 할 일도 없었다. 일이 너무나 하고 싶었다.

그때 회사에서 계열사 프로그램인 <연애의 참견>에 출연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기꺼이 응했다. 주인공으로 5편 정도 출연했다. 또 광고주인 제2은행권 광고에 출연하느라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춤을 열심히 독학해서 찍기도 했다. 스포츠 채널에 있으면서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스스로의 틀을 깨는 데 도움이 됐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 왜 SBS에 왔나?

**김다영:** 지상파 3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는 비정규직이다. 저도 목포와 부산에서 각각 계약직, 프리랜서 신분이었다. 미래가 불안하니 로스쿨과 노무사 준비를 병행하기도 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나운서라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지던 중 SBS의 경력직 아나운서 공채 공고를 봤다. ‘코이’라는 물고기는 어항에 넣어두면 엄지손가락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호수나 강물에서는 1미터가 넘게 자란다고 한다. 몸담고 있는 환경에 따라 몸집이 달라지는 코이처럼, 저도 SBS라는 바다에서 제 능력의 한계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싶다. 실제로 제가 일하는 방송사의 규모가 커지고 역량이 커질 때마다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SBS에서도 이곳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가현:** 저 역시 계약직이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건 하늘에 별따기다. 방송을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고 계속하고 싶은데, 미래가 불안했다. 그러다가 경력 공채 공고를 보게 됐다. 아나운서의 꿈을 구체화해준 SBS였기 때문에 더 간절했다. 꿈을 만들어준 SBS에서 이제는 꿈을 펼칠 수 있어 행복하다.

### 두 사람이 이름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하다.

**김다영, 김가현:** 마스크를 써서 더욱 헛갈려 하신다. 머리를 푼 사람(가현)과 묶은 사람(다영)으로 구별하시는 분도 있다. 성격도 비슷하다. 허점도 많고 가식 없고 털털하다. 알고 보니 대학 동문이기도 해서 더 각별하다.

### 취미는?

**김다영:** 활동적이라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부산에서는 광안리에 살았는데, 아침마다 바닷가에서 조깅을 했다. 패들보드나



김다영



김가현

서핑 같은 해양 스포츠도 좋아하고, 등산도 자주 갔다. 7~8년 정도 꾸준히 한 요가는 국제자격증도 뒀다.

**김가현:**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본 영화를 다시 보는 것도 좋아한다. 최근엔 레이디 가가가 출연한 ‘스타 이즈 본’을 다시 봤는데, 꿈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 말고 싶은 프로그램은?

**김다영:** SBS는 뉴스 스타일이 담백하고 세련됐다. 이걸 잘해 보고 싶다. 또 라디오도 하고 싶다. 아나운서가 자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녹여낼 수 있는 곳은 라디오라고 생각한다. 실력을 쌓고 생각의 깊이를 더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

**김가현:** 스포츠 방송을 하면서 스포츠가 좋아졌다. 30대가 돼 서야 빛을 발하는 대기만성형 투수들, 대타로 나와서 만루 홈런을 친 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정이 더 커졌다. SBS에서도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하고 싶은 말은?

**김다영:** 아나운서 일을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평생 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무엇보다 아나운서 선배님들께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다. 이전에는 혼자 공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항상 이게 맞는 방향일까 의문이 들었다. ‘이번에 아나운서 정말 잘 뽑았다’ 하는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감사한 마음 오래오래 간직하고 잊지 않겠다.

**김가현:** 좋은 사람이 좋은 방송을 한다고 생각한다. 일상에서 먼저 좋은 후배, 동료, 가족, 친구가 돼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방송에 나왔을 때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김가현이라는 사람이 SBS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확장해나가겠다.



## 1기 충격 결말 < 나는 SOLO >, 2기에 또 결혼 커플 탄생한다!



방송 7회 만에 실제 결혼 커플을 탄생시키며 ‘극사실주의 데이트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나는 SOLO>가 9월 1일(수) 대망의 2기 출연자들을 소개했다.

연예계 대표 솔로 데프콘, 전효성, 이이경이 진행을 맡은 <나는 SOLO>는 SBS플러스와 NQ(skyTV) 공동 제작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방송을 시작한 이래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고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며 단숨에 SBS플러스를 대표하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떠올랐다.

특히 7회의 반전 결말은 큰 화제를 모았다. 1기 마지막인 7회 방송에서 최종 커플 선택이 끝나고 실제 결혼한 커플의 사진이 공개되자,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진짜 소름 돋았다”, “이런 반전이 또 없다”, “역시 남녀 사이는 식장에 손잡고 들어갈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시청 후기가 쏟아졌다.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뜨거운 화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기에서도 결혼을 약속한 커플이 탄생했다. 결혼을 약속한 커플은 누구일지 맞춰 보는 것도 프로그램을 보는 재미를 더한다.

“사랑을 찾는 솔로 남녀들의 성지 같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다”는 제작진의 각오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나는 SOLO>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 30분 SBS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다.